



남원시가 초고령 독거노인들의 응급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응급안전시스템 300대를 추가로 설치,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 남원시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 초고령 독거노인 응급안전사고 대응위해 300대 추가... 복지행정 구현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초고령 독거노인들의 응급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응급안전시스템 300대를 추가로 설치,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시는 현재 관내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비롯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남원소방서의 119급차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2014년 1,937명, 2015년 2,081명으로 전년 대비 144명이 증가해 촘촘한 안전

망에도 초고령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독거노인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에 응급안전시스템 300대를 추가로 설치, 독거노인의 사고율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응급안전시스템은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독거노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미 150대의 응급안전시스템을 150명의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확보된 1억여원의 예산으로 300대를 추가로 설치, 모두 450명의 독거노인들을 세심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순복 노인복지계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가정에 응급안전망 설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효과 '톡톡'

###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4개 수행기관 추진 참여자 676명

순창군이 기존 청소년활동 등에 한정되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역실정을 반영해 다변화 하면서 일자리 참여자와는 물론 수혜자의 만족도까지 대폭 높이는 성과를 거둬오고 있다.

순창군은 이런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변화다. 올해 군과 4개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0여가지에 이른다. 참여자도 무려 676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들이 지금까지 사회활동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지식과 유익한 경험을 전담해 줄 수 있는 경력전수사업은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최근 순창지역 경로당에서는 할머니 레크레이션 강사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레크레이션강사 경험 있거나 한달 동안의 레크레이션

강의를 수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다.

노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레크레이션도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어르신 책임어주기 사업도 인기가 높다.

노인들은 전문 독서지도사 교육을 받고 요양원이나 노인시설을 방문해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경로당 심폐체조, 발 마사지 교육 노인생활 매니저사업 등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과 게이트볼 지도 등 체육활동 경륜지원사업도 호응도가 높다.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눈에 띈다. 군은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에 중점을 뒀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아이들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스쿨존 교통통제는 물론 급식도우미, 보육교사 도우미 활동 등에 참여한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 세대간 공감대 확대에도 기여한다.

이외에도 동네 어르신들의 단체 나들이 때 그 동네 방법 활동을 책임지

는 내고향 안전지킴이도 특이한 사업이다.

이밖에도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클린순창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운동도 추진해 군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노인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에서 지역의 가장 큰 산업인 장류업에 공급하는 매실 가공 등을 진행해 올린 수익이 지난해 5000여 만원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서는 큰 금액이다.

군은 앞으로도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2%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노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순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심민 임실군수, 폭염대비 현장행정 나서

### 11개소 관내 경로당 방문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민 임실군수가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는 등 현장행정에 나섰다.

심 군수는 휴일인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을 걸쳐 관내 어머니 경로당을 비롯한 11개소의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무더위 쉼터의 방방기 등을 점검하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건

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집중 예찰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효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군 보건의로 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방방기를 갖춘 경로당 및 읍면사무소 등 3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홍보를 위해 노인돌봄비, 방문관리사,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일곱빛깔 무지개장터 개장

### 임실치즈마을 체험프로그램 · 매주 토요일

'치즈'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는 임실치즈마을에서 농특산물, 치즈관련 먹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일곱빛깔 무지개장터'가 개장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농식품 6차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임실치즈레인보우 주식회사(대표 조기현)는 지난달 30일 매주 토요일 열리는 주말장터를 개장했다.

오는 11월까지 치즈마을 내 로컬푸드 매장 일대에서 열리는 '일곱빛깔 무지개장터'는 치즈떡거리, 유제품, 농특산물을 비롯해 체험마을에서 선배는 알찬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야외 어린이용 물놀이장이 개장돼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핸드프린팅, 무지개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오감만족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조기현 임실치즈레인보우(주) 대표는 "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일곱빛깔 무지개장터'라며, "FTA체결 및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고향 농촌을 돕기 위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



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20억원(국비110억, 군비6억, 자부담4억)을 투입해 치즈마을 내 농가레스토랑, 농산물판매장, 요리체험장 등을 완비하고 대외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임실치즈레인보우 주식회사는 치즈마을을 포함해 지역 내 여러 마을공동체와 한우협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보건소 아토피 의료비 지원

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의료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16년도 4인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6만 1,332원, 지역가입자 17만9,719원 이하) 가정의 구성원이다.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등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으면 검사비(진단) 및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을 연 1인당 48만원까지(입원치료인 경우 5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피부과전문 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한 진단명 상병코드(I20)가 기재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 확인서, 처방전, 입급통장 사본 등이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1시~5시)에 아토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 예방관리 건강 강좌 및 아이사랑 아토피 예방교실 운영 등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보건소 한방재활담당(☎620-7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경찰, 이륜차 운전자 사고예방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훈)가 휴가철을 맞아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른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해 예방에 따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중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하여 마을별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올바른 안전모착용법에 대한 설명과 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반사지 부착으로 이륜차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유종수 교통관리계장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이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이라며 이륜차 운전자에게 대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쿨 맵시 캠페인 전개

임실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쿨 맵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쿨맵시 캠페인'은 시원하다는 의미의 '쿨(COOL)'과 순 우리말의 옷차림 모양새를 뜻하는 '맵시'의 합성어로 신속성과 품이 여유롭고 통풍이 잘되는 쿨 소재를 활용한 활동적인 옷차림으로 여름을 보내자는 뜻이다.

시원하고 품격 있는 옷맵시로 무더운 여름을 체감온도(2C)를 낮추며 방방은도를 높여 냉방비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공공기관의 전 직원들과 상가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하고 시장,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폭염이 찾아지는 8월 말까지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긴급방제

순창군이 최근 지역에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이 급증해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6300만원을 긴급 확보하고 갈색날개매미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군은 최근 4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0여명의 방제협의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대책, 방제 약제 선정 등 효율적 방제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군은 예비비 확보와 회의결과에 따라 8월 중순까지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공동방제에 나서는 등 갈색날개매미충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이 증가한 원인은 천적이 없으며 기주식물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또한 월동난 부화시기에 높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도 원인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매실, 블루베리, 두릅, 오디 등 과수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가지에 알을 낳아 고사 시키거나, 흡즙하여 생육을 불량하게 만들며, 배설물에 의해 그을음병이 발생하는 등 과실 품질을 떨어뜨려 과수농가 등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갈색날개매미충의 성충이 8~9월경 산란하는 시기로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농가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제가 공급될 경우 개별 방제보다는 마을 이상 중심으로 공동방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성호도서관 인문학 수강생 모집

고창군립 성호도서관이 청소년 인문학 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성호도서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관내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 '우리 책과 인문학 맛보기'를 개설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홍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다.

성호도서관은 '우리책과 인문학 맛보기' 강좌와 함께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대출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2배 늘려주는 '공공도서관 두배로데이'도 진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